

2026/06/08

[경제/환율]

위재현 선임연구원

Jhwee11@iprovest.com

## 5월 미국 고용: 부정할 수 없는 견고함

### 비농업 신규 고용 +17.2만 서프라이즈, 실업률도 3개월 연속 4.3% 유지

미국의 5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17.2만명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8.5만)를 두배 이상 상회했다. 게다가 직전 2개월 고용은 4월 +6.4만명, 3월 +2.9만명이 상향 조정되며 3개월 연속 고용의 추세적인 반등이 확인됐다. 물론 신규 고용 대부분이 여전히 소수 업종에 쏠려 있긴 하지만, 헤드라인 지표가 균형 수준을 3개월 이상 상회하고 있는 점은 안정적인 고용시장을 시사한다. 한편 실업률은 4.3%로 3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가계조사의 세부 내용을 보면, 장기 실업자의 비중이 올라간 점은 부담이지만 기타 질적 지표는 대체로 양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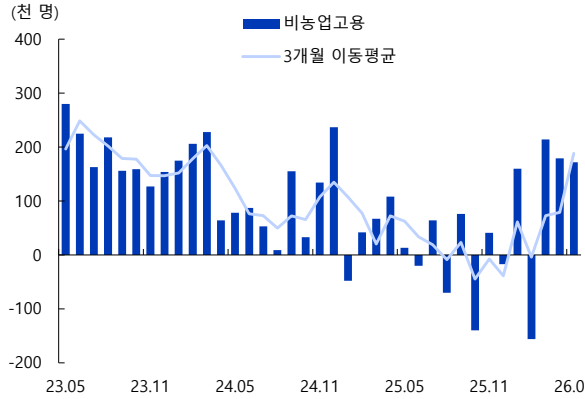
### 월드컵 효과&소수 업종 쏠림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안정적

이번 5월 비농업 고용의 서프라이즈는 여전히 소수 업종이 주도했다. 다만 교육과 헬스케어에 집중되었던 지난 1년간의 패턴과 달리, 이번 5월에는 여가 및 숙박업 부문이 신규 고용의 40%를 차지하며 헤드라인 지표를 견인했다. 해당 부문의 고용 증가는 6월부터 진행되는 월드컵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채용에 기인했는데, 실제로 월드컵 개최도시의 경우 채용공고가 1-4월 대비 5월에 크게 증가한 반면 비개최도시의 고용량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도표3). 고용이 소수 업종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장 전체를 보더라도 안정적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 헬스케어와 여가&숙박업을 제외한 비농업 부문 고용은 최근 3개월 평균 7.7만명을 기록했는데, 연준에서 추정하는 균형 고용이 2만명, 달러스 연에서 추정하는 균형 고용이 3만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쏠림을 제외하고 봐도 안정적인 상황(도표5)이다. 구조적인 수요-공급을 확인하는 지표인 '실업자 한 명당 구인공고' 비율은 다시 1을 넘어서며 전반적인 고용시장이 다시 수요 우위 국면으로 진입했다. 한편 실업률을 집계하는 가계조사 데이터에도 질적인 개선이 있었다. 지난 2개월간 실업률이 안정화된 배경이 실제 고용 증가가 아닌 노동자들의 시장 이탈에 있었다면, 이번 5월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된 상황에서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안정됐다. 핵심 노동연령인 25-54세의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꾸준히 반등하고 있다.

### 불안한 요소는 장기 실업자와 AI 관련 해고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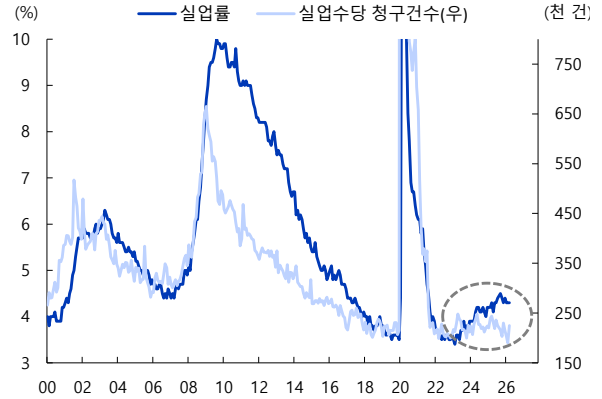
물론 모든 지표가 견조한 노동시장을 시사하지는 않는다. 특히 실업률은 4.3%로 낮은 수준이지만, 27주 이상 장기 실업자가 5월 한달에만 15.5만 명 증가하며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5%로 확대됐다(도표7). 게다가 민간 기업의 해고 데이터를 집계하는 챌린저스&그레이에서는 올해 1-5월 사이 'AI로 인한 기업들의 해고활동'이 지난 3년간 합산한 수치보다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도표8). 기존 노동자들의 시장 재진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AI 관련 해고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헤드라인 지표 강세 이면의 불안 요소는 향후 고용시장 방향성이 다시 둔화 흐름으로 바뀔 때 그 속도를 증폭시킬 수 있다.

[도표 1] 비농업 고용자수와 3개월 이동평균: 추세적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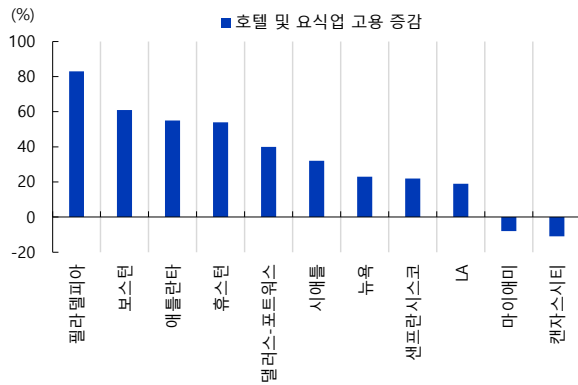
자료: BLS,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실업률은 3개월 연속 4.3% 수준을 유지



자료: BLS,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 월드컵 개최지 요식업 부문 1-4월 대비 5월 고용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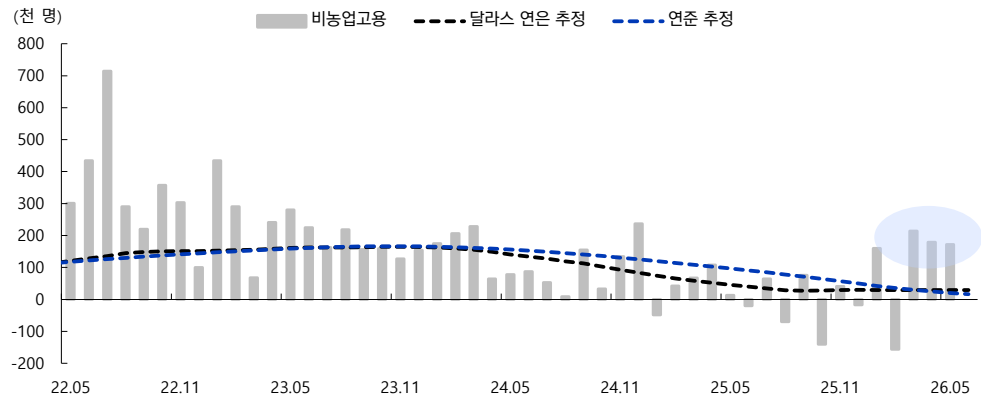
자료: OysterLink,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실업자 한 명당 구인공고는 다시 1을 상회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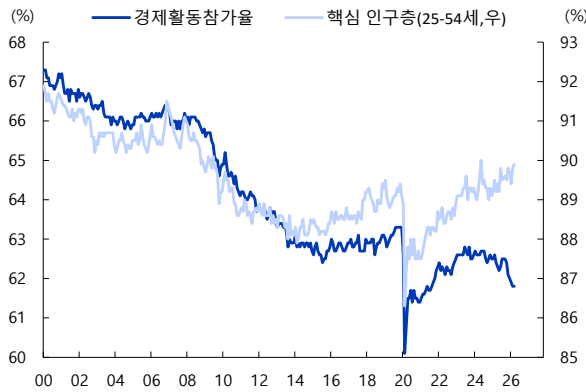
자료: BLS,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 비농업 신규 고용자수와 균형 고용: 균형 수준을 3개월 이상 상회한 것은 강한 노동시장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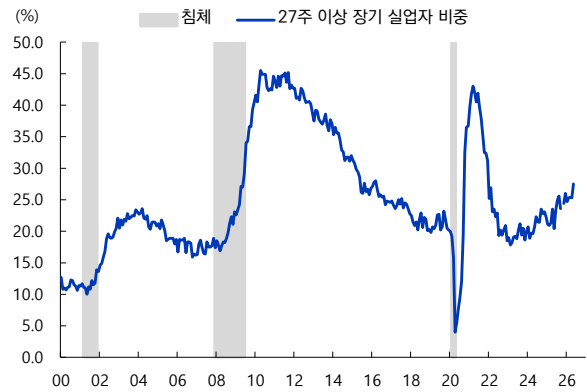
자료: FRB, Dallas Fed, BLS,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 경제활동참가율은 핵심인구층 중심으로 안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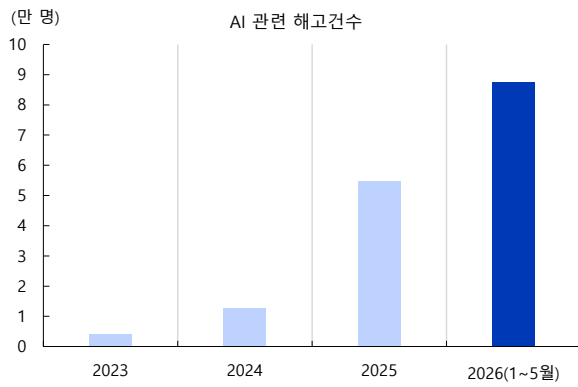
자료: BLS,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 27주 이상 장기 실업자 비중은 꾸준히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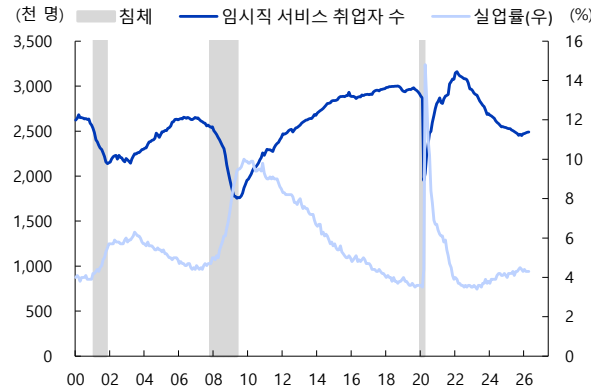
자료: 열린재정, 기획재정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8] AI 관련 해고건수는 올해 1-5월 사이 빠르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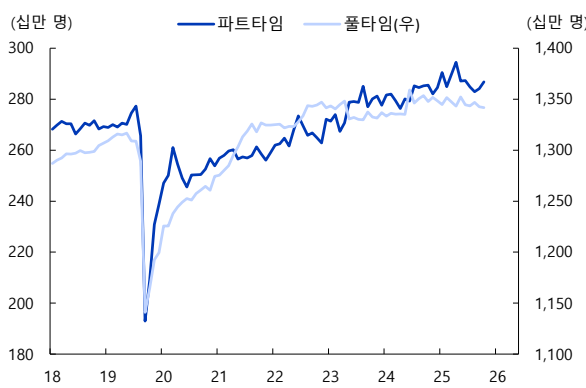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9] 임시직 서비스 취업자수와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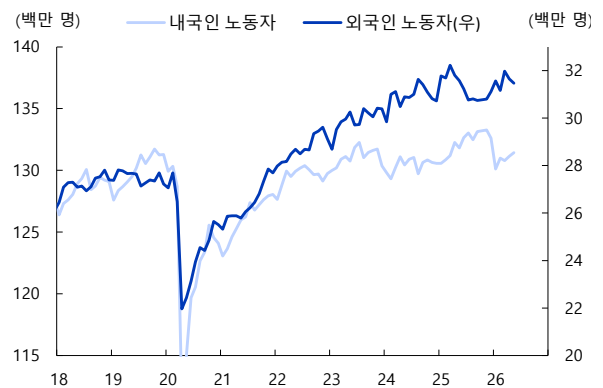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0] 파트타임과 풀타임 고용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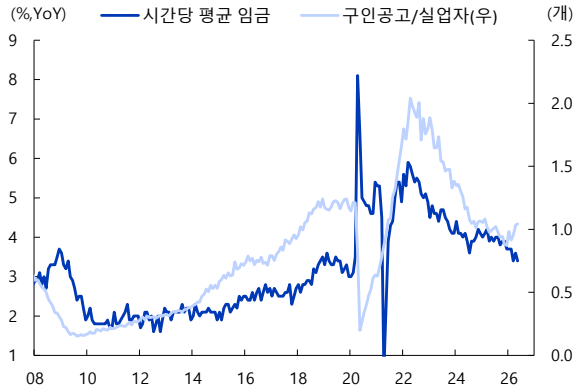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1]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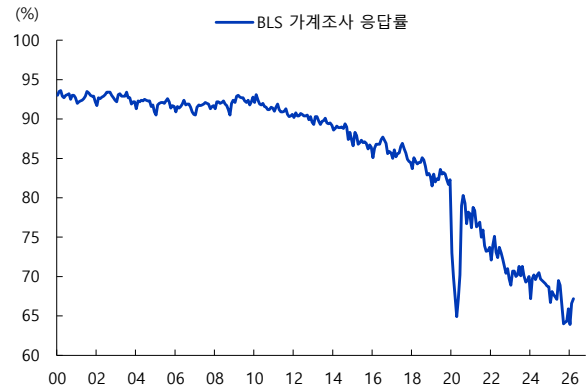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2] 임금 증가율과 노동시장 수급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3] BLS 가계조사 응답률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전일기준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